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9월 2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소망부 교사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피부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 운 혁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소망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망부는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다운증후군 등 발달장애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부서입니다. 교회 봉사와 관련하여 교사의 직분은 생각도 못했던 저를 이 소망부로 보내주셔서 발달장애를 겪는 우리 학생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부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사로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목표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직을 결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동안 가족들이 저에게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도록 강하게 권유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등에 점이 생겼는데 언제부터 인지 그 점이 커져 딱지처럼 변하더니, 딱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생기기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그 부위에서 물집과 진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물을 빼내기 위해 습윤밴드를 붙이고, 상처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가족들이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였지만 저는 단순한 상처로 생각하여 지나치고, 하루하루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도 제가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병변 부위가 더 커지고 습윤밴드나 큰 밴드를 간신히 붙이는 지경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서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동네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변 부위를 보자마자 대학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야 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견서에 피부암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보고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예약을 하고 곧바로 교구와 봉사하는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며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피부암이 의심된다면서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부 편평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었는지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암이라면 병변이 발생한 지 오래되어 전이가 우려되었는데, 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이가 안 된 초기암이라고 해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 놀라서 걱정하였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며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음을 편하게 가졌습니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담담하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피부의 병변 부위가 넓어서 두 번에 나눠서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일정 중에 여름성경학교 기간이 들어있어서 저는 소망부 학생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학교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여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감사하게도 입원하지 않고 곧바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수술과 여러 번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수술하는 과정, 수술 후 치료 과정 모두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치료의 복음과 기도에 관한 설교말씀을 찾아서 다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지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기도한 대로 소망부에서 봉사하며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의 교역자님과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봉사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살피주시고 도와주셔서 힘이 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송하고, 또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부르고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흠뻑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수술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모두 끝났을 때 주치의 교수님께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가 커서 잘 아물게 될지 걱정하였는데 그 염려가 무색하게 잘 아물어서 곧 실밥을 제거하고 치료를 마치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병 초기에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소망부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여름성경학교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응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3: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5)

치료받는 과정에서 잠시 저의 이직이 미뤄졌지만, 저는 항상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곧 새 직장에 들어가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전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5과) 백성을 가르치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5:1-20
- 요절 :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 찬송 : 찬송가 377장(새찬송가 449장), 379장(새찬송가 204장)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항상 3가지의 일이 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및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이러한 복음사역의 방법은 가장 훌륭한 선교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은,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전역과 요단강 건너편에서조차 많은 무리가 모여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교훈이 무한히 보배롭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교훈이 8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에 대하여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자세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한결같이 현세적이고도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들은 결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이나 명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영원한 행복과의 관련성 하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실한 신앙 자세가 요구되며, 그 결과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조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덟 가지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이웃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길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넷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지위, 명예, 물질, 권세 같은 것에 대한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기를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죄 용서받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 자를 말합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불화한 사이를 화목케 되도록 중재하며, 특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성품들을 말하며, 이러한 성품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들로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덟 가지 복

예수님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이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둘째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셋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넷째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배부를 즉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가운데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여덟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복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며,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천국에서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복보다는 이상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사모하며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